

## 美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최선 다할 것”

**북한자유주간 라운드 테이블  
 강제복송·대북 정보 유입 문제  
 집중 논의**

제23회 북한자유주간 4일째인 29일 워싱턴 D.C.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북한자유주간 대표단 초청 의회 라운드테이블’이 열렸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수잔 솔티 북한자유주간 의장을 비롯해 탈북민 대표단과 미 연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 내부의 생활 실상, 외부 정보 유입의 영향,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강제복송 위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 등을 놓고 증언과 질의를 이어갔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권 확대, 탈북민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지원 등을 뒷받침해 온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뒤 여러 차례 재승인돼 왔지만, 2022년 이후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자유주간 대표단 초청 의회 라운드테이블. 탈북민 대표단과 관계자들이 자유북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년에도 재승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아 최종 입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영 김 의원과 아미 베라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5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25)을 다시 발의했다. H.R. 5959로 제출된 이 법안은 기존 북한인

권법의 주요 조항을 연장·강신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정보 접근권 증진, 북한인권특사 직위의 조속한 충원, 대북 정보 유입 촉진 등을 담고 있다. 현재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외부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 인식 변화**  
 김지영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최

근 자유북한방송이 2022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30·40대 탈북민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응답자의 66%가 한 주에 한 번 이상 외부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통해 자유에 대한 꿈과 탈북의 용기를 갖게 됐다고 답했다”며 “김정은 정권이 청년교양

보장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 문화이보호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체제 붕괴와 독재 유지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독재 정권은 흔들리고 북한 주민들은 살 길을 찾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 과정에서도 외부 정보 유입의 영향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대표는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외부 정보를 한두 번 이상 접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압록강 국경, 해외 파견 노동자, 우크라이나 파병 군인, DMZ 인근 대북 방송 등을 통해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2010년 이후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지 못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김정은 정권이 이른바 3대 악법을 만든 것은 외부 정보가 북한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2면에서 계속

## 베델 50주년 미션 컨퍼런스, 김병삼 목사 "신앙의 보상... 세속적 성공 아니야"

베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파송/협력 선교사 및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자 100여 명을 초청해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오정현 목사, 류응렬 목사, 김병삼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선교와 신앙의 본질을 풀어냈다.

2일 저녁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김병삼 목사(만나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인스펙션해 보자. 말씀이 우리



김병삼 목사 ©기독일보

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픔을 통해 자신을 돌

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불편함과 자기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자신의 경험도 나눴다. 그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왜 사람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지 이해될 정도였다”며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문제가 드러날 때 우리는 ‘나는 이것 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민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 없는 신앙의 위험성도 지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꿈꿀 때가 많다. 그때 신앙은 종교적 현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신앙은 위험하다”며 “기도의 응답만을 기대하는 것

은 일종의 중독이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의 의미를 ‘고통’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십자가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며 “십자가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는 무엇인가’고 계속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신앙 속에 자리 잡은 ‘보상 심리’를 경계했다. 토마스 멩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6년 대박  
 ☑ 상업을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 교회는 공사비의 40%까지 인센티브 가능(Direct IRS)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44 YEARS ANNIVERSARY  
**창립기념 부흥성회**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일시: 2026. 5/14 (목) -17 (주일)**  
 14(목) 7:30pm / 15(금) 5:15am, 7:30pm / 16(토) 6:00am, 7:30pm  
 17(주일) 1부 7:20am, 연합 11:00am (2,3,4부)  
**강사: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김병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주일 | 1부7:20am, 2부9:10am, 3부11:20am, 4부2:00pm | 금요성령집회 7:30pm | 새벽예배(일천번제)월~금 5:30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 서울메디칼그룹 ‘앤섬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 선정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앤섬 블루 크로스의 ‘올해의 전국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앤섬은 매년 미 전역 앤섬 네트워크 내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의료그룹을 표창하는 프로그램(Care Provider Recognition Program, CPRP)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메디칼그룹을 포함해 전국 44곳을 선정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울메디칼그룹과 시더스-사이나이 등 4곳이 수상자에 올랐다.

앤섬이 미 전역 앤섬 제휴 보험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양질의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독립 및 병원 소속 의료그룹의 공로를 기리는 한편, 가입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진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앤섬은 가입자들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보건 지표들을 바탕으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예방검진을 포함해 예방접종률, 만성질환 관리, 약물 복용 준수율, 그 외 여러 건강 성과 측정 항목 등에 대한 2025년 지표를 평가한 결과, 전국 네트워크 내 상위 1%에 해당하는 의료그룹 중 수상자를 선정하는 ‘최우수 의료기관(CPRP Excellence in Care Award Winners)’



© seoulmedicalgroup.com

에 꼽혔다.

서울메디칼그룹 리처드 박 회장은 “앤섬의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앤섬 블루 크로스 커머셜 건강보험 부문 베스 앤더슨 사장은 “커뮤니티의 건강 증진과 가입자들을 위한 수준 높은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메디칼그룹의 공로에 감사한다”며 “예방진료, 만성질환 관

리, 전반적인 환자 건강 증진에 대한 서울메디칼그룹의 헌신은 우리가 함께 커뮤니티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울메디칼그룹

1993년 한인 의사들이 주도해 설립한 독립 의사 협회(IPA)로 미국 내 대표 한인 메디컬 그룹으로 성장했다. 1989년 창립한 한미메디컬그룹과의 통합으로 미국 내 대표 아시아인 메디컬 그룹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한인, 아시안, 시니어 등 이민자 커뮤니티 및 사회 취약층을 위한 의료 지원 및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민선 기자

## 다음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산하 CPC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6월 4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린다.

알파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세대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알파세대 이해와 다음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이수영 교수(GMU 교육학·철학 박사 프로그램 학과장, CPCCI 총디렉터), 예스티 송 교수(TBRI Practitioner), 이세영 교수(

미주복음방송 부사장, CPU 선교학 교수)가 강의한다.

강의 외에도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세미나 전 과정은 미주복음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포스터의 QR코드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www.kgbc.com)에서 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5월 29일이다.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 세미나

일시: 6/4일(목) 오전 9시-오후 3시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 1면 기사 <영영김 의원>에 이어서 탈북민 증언 “생존 위해 떠났고, 외부 정보를 통해 자유를 알았다”

탈북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최춘혁 씨는 북한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러시아 수역까지 나가 조업하다 체포되는 현실을 전했다.

최 씨는 “러시아 해상경찰에 나포돼 2년 1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며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한류와 외부 정보를 접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보위부의 고문과 교도소 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난민 신청을 했으며, 국제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희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청년돌격대에서 혹독한 노동을 겪은 경험을 전했다. 그는 “장갑도, 신발도 제대로 주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옥수수밥을 먹으며 일했다”며 “그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와 강제복속 문제도 제기됐다. 이순실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복속을 반복적으로 겪은 경험을 전하며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밤 한 끼 때문에 길을 떠났다가, 여기까지 와서야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북한 여성들과 아동들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 세계가 목소리를 모아 북한의 무너진 인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군 파병 문제도 논의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은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단순한 군사 협력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북한의 어린 청년들이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졌고, 포로가 되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처형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

우 생명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대표는 “그들이 돌아가면 100% 죽는다”며 “한국 정부가 침묵한다면 미국 정부와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구해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 참석한 연방의원들 “한미가 다시 힘 합쳐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 의원들도 탈북민들의 증언에 응답했다.

팜을 대표하는 제임스 모일런(James Moylan, 공화·팜) 미 연방하원 대의원은 “제21회 북한자유주간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다시 힘을 합쳐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또 다른 30년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톰 배럿(Tom Barrett, 공화·미시간) 연방하원 의원은 자신이 19세 때 미 육군으로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당시 받은 DMZ 철책선 기념 액자를 이날 현장에서 보여줬다.

그는 해당 액자가 6.25전쟁 발발

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 탈출했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와 존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위해 최선 다할 것”

영 김 의원은 라운드테이블 말미에 탈북민들의 증언을 의회 활동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20년 전에 탈북한 분들이나 아주 최근에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의 현실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소식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점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젊은 분들이 외부 정보를 듣고 탈북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도 방송을 통해 도움과 용기를 얻기 때문”이라며 “지금 여러 분들이 한 이야기를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법안을 다시 재승인시키는 데 모두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북한에 방송할 수 있는 자원을 책정하는 것”이라며 “자유북한방송이 목숨을 걸고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 온 일에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 방송 활동의 목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북한 주민에게 용기를 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 가깝게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용기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나 자신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입이 돼 동료 의원들과 더 대화하고, 북한 인권법안 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 이래도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을 아는 사람에게 대강 가입하시겠습니까?

## 데이터로 보는 캘리포니아 보험

- ✓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생명보험과 개인은퇴연금 회사(캐리어)는**  
- 약 270~300여 개 사
- ✓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수**  
- 생명보험 : 5~15개  
- 개인은퇴연금 : 3~10개
- ✓ **한 상품당 선택할 수 있는 라이더(특약)의 수**  
- 생명보험 : 보통 5~15개  
- 개인은퇴연금 : 보통 3~8개
- ✓ **평균적으로 동시에 선택하는 라이더 수**  
- 2~5개 정도
- ✓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 할 수 있는 확률은?**  
- “수십만 대 일 ~ 수천만 대 일”  
- 캘리포니아보험국 ‘2024 MARKET SHARE REPORT’ -

“보험 선택은 수백만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을 기준으로 1~3개로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상품에 대해 알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Agent 신정호 (Lic# 4462712)

- Cell : 949-522-0778
- jeongho.shin@bridgeoneins.com
- Office : 562-222-8877
- Fax : 714-636-0023
- 6767 Katella Ave, Cypress, CA 90630



유튜브 채널

새비이코노미



에이전트 모집중 재정 전문가로 함께 성장할 인재를 찾습니다.

# “소그룹으로 지역교회 활성화” 15개 교회 목회자 비전 공유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웨드미션대학교 5층 멀티미디어룸에서는 ‘지역교회 활성화를 위한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회자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모임에는 프로젝트에 선정된 15개 교회 목회자와 소그룹 사역 담당자들이 참석해 각 교회의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23일 웨드미션대학교 소그룹 사역센터와 기독일보가 공동 주최한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라’ 세미나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신신목 교수는 프로젝트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5월에는 목회자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4주간 진행되며, 6월부터 11월까지 소그룹 사역자 훈련 워크숍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10월에는 중간 평가를, 내년 1월 말에는 최종 보고서 제출과 함께 2월에는 결과 공유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각 교회가 처한 현실과 그에 따른 다양한 소그룹 사역 방향이 소개됐다.

LA장로교회 한현종 목사는 기도 중심 소그룹을 해왔으나 말씀 목상을 강화한 구조로의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로스교회 정하이 목사는 요한복음을 반복해 읽고 그 목상한 내용을 적용한 삶의 나눔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 회복 등 삶의 변화라



소그룹 사역 지원 프로젝트 목회자 워크숍. © 기독일보

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 나성서남교회, 선교적 교회 지향

나성서남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 사역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권능 목사는 51년 된 교회의 특성상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다고, 전통적인 구역 체계를 유지하되 별도의 소그룹 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향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이 크다. 기존 틀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성서남교회는 하이킹, 뜨개질,

악기 모임 등 다양한 활동 중심 소그룹을 통해 교회 밖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앙을 교회 내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상의 관계 속으로 확장하는 ‘선교적 통로’로 소그룹을 활용한다.

최 목사는 교회가 굳어지고 배타적이 되는 것을 염려하며, “어떤 권사님이 ‘새가족이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교회가 자칫 배타적인 공동체로 굳어질 수 있다. 소그룹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관계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에 경험했던 소그룹 세미나에 대한 실망과 이번 세미나를 통한 소망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저는 소그룹 세미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감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갖추어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저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듯 나열하는 게 너무 싫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데 이번 모임을 통해 이것은 좀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치유

공동체 회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사례도 소개됐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원철 목사는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경험한 성도들이 모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며, “작은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시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라크라센타 어노인팅교회 신경

섭 목사는 교인들의 필요를 반영해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인들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보다는 삶의 나눔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80세 되신 교인분들은 온갖 것을 다 겪으셨다. 우선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 한다. 제가 받은 은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역이다. 작년부터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의 협력으로 정신건강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교회 소그룹 내에서 나눔이 잘 되면 우울한 것은 다 소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지속하려 한다.”

또한 주일예배에 참석이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룹의 장애인들과 소그룹, 실업인 소그룹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 소그룹, 리더십에 달려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뚜렷했다. 아름다운교회는 셀 리더에 따라 나눔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 리더 교육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알함브라 한인필그림교회 이기영 원로목사는 지난 20년간 ‘섬김의 사역’을 목회 철학으로 삼아왔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수준은 리더의 수준과 같다”는 신념 아래, 팬데믹 이후 변화 속에서도 리더 양육에 목회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더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 12면에서 계속

## Vrew AI -영상제작 첫 강의 무료공개

캘리포니아 기술 대학(California University of Technology)는 ‘Vrew AI 영상 제작 기초 및 고급 정규 8주 과정’을 개설하고, 5월 9일(토) 첫 강의를 무료 공개한다.

이번 무료 공개 강의는 Tustin 현장 강의실과 Zoom 온라인 강의로 동시에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에는 기초 과정, 오후 3시 30분에는 고급 과정이 각각 열린다.

무료 공개 강의: 5월 9일(토)

정규 과정: 매주 토요일 8주 과정 (현장 + Zoom + 녹화)

시간: 기초 1:30 PM / 고급 3:30 PM

장소: OC강의실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참가 신청: <https://forms.gle/1tJ4kHsUuCHI61D7A>

문의: 657-347-4556 / 714-393-4595 (문자 가능)

California University of Technology (CAL U TECH) <https://calutech.us>

**Vrew AI 첫 강의 무료 공개 강의-기초 및 고급과정 영상 제작 8주 정규 과정 오픈**

- 유튜브 및 소셜 영상 제작
-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영상 제작
- 자신의 채널을 위한 영상 제작
- 고급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 직접 AI 모델을 사용하여 영상 제작
-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 및 공유

무료 공개 온라인 강의

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고급 과정 3월 30분

현장 및 ZOOM (8주 과정)

강의 신청 QR

기초 과정: 비디오 영상 제작을 만드는 시대

- www.vrewai.com에 방문
- 비디오 제작을 위한 영상 제작
- YouTube/Video/기타 영상 제작
- 유튜브 채널을 위한 영상

고급 과정: 콘텐츠 전략/제작/수익화까지

- 콘텐츠 전략/제작/수익화까지
- 비디오/영상/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리얼타임
- 광고/소셜 미디어/채널/영상 제작
- 다양한 플랫폼에 업로드 및 공유

문의: 657-347-4556 / 714-393-4595 (문자 가능)

주소: California University of Technology (CAL U TECH) 1442 Irvine Blvd, STE 108, Tustin, CA 92780

이메일: [info@calutech.us](mailto:info@calutech.us) / [admission@calutech.us](mailto:admission@calutech.us)

주소: California University of Technology (CAL U TECH)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 OC 지역 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GMI 청소년 오케스트라(지휘 정승재 교수)와 OC 한인회가 공동 주최하는 ‘OC 지역 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가 오는 5월 16일(토) 오후 4시, OC 한인회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음악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감동의 무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사회의 뿌리인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

획되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정승재 교수의 지휘로 클래식과 가요, 우리 민요를 아우르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일시: 5월 16일(토) 오후 4시

장소: OC 한인회관 (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주최: GMI Youth Orchestra, OC 한인회

문의: 714-318-2085

다음 세대를 위한 감동의 무대,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OC 지역 사회를 위한 위로 음악회**

일시: 5월 16일(토) 오후 4시

장소: OC 한인회관

주최: GMI Youth Orchestra, OC 한인회

지휘: 정승재 교수

주최: GMI Youth Orchestra, OC 한인회

지휘: 정승재 교수

주최: GMI Youth Orchestra, OC 한인회

지휘: 정승재 교수

→ 1면 기사 <베델교회 50주년>에 이어서 김 목사는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상이 무엇이라는 것”이라며 “세속적 수준의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신대 학생들하고 큐엔에이를 할 때가 있었다. 저는 지금도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한 장신대 학생이 ‘목사님, 다시 30-4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다. 지금의 모습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았다”며 “잠시 생각해보자. 내게 다시 그 시간이 주어진다. 어떻게 살까? 지금처럼 살 것 같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아프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삶을 선택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감사했다”고 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사람의 인정이 없을 때 서운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다. 십자가의 삶은 인정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이어진다”며 “그 길이 가치 있는 삶을 믿을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고 했다. 이어 “불안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2026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http://ncahuskies.org)

#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다음 세대

베델교회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셋째 날, 오전 주제 특강을 이끈 시애틀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는 전통교회를 변화시킨 경험을 꺼내 들었다.

그는 마태복음 9장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중심으로 그는 오늘날 교회를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구조"로 진단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교회를 살립니다."며, 대부분 교회가 '성장 후 선교'를 말하지만, 그는 선교는 결과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제교회가 팬데믹 이후 선교 사들과의 재연결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간증했다.

"가장 좋은 예배를 내려놓았다... 교회는 그때 살아났다"

그는 형제교회가 '주일 3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전환했다며,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조정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자리와 편의를 내려놓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에 따르면, 놀라운 점은 반발이 아니라 80대 장로와 성도들의



권준 목사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는 주제로 베델교회 50주년 기념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에서 강의했다. ©베델교회

지지와 헌신이었다. 어떤 권사는 영어 예배를 위해 개인적으로 모은 돈을 헌금했고, 기성세대는 불편을 감수하며 변화를 받아들였다.

권 목사는 이러한 변화를 전략에 따른 결과가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변화였다고 설명했다. "교회는 전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랑으로 움직인다."

"늙은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

권 목사는 부임 당시 형제교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에 가까웠으며, 고령화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교

회 상황을 "교회가 부활이 아니라 장례식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닌,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성도는 '참석자'가 아닌 '선교사'라는 생각의 전환 이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공동체로 바뀌었다.

설교 후반, 그는 "가장 큰 낭비는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드리지 않는 삶이 오히려 낭비입니다." 주디 한 기자

# 캘리포니아,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정보 공유 추진 논란



©DMV 웹사이트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 소지자 정보를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 정보 노출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민자단체들은 관련 조치가 서류미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AB 60 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최근 미국자동차관리협회(ASTM)가 운영하는 주간 검증 시스템 및 SPEXS 플랫폼과 면허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 5,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스템은 한 사람이 여러 주에서 중복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유 대상 정보에 사회보장번호 일부 또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사용되는 대체 식별번호가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를 식별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3년 제정된 AB 60 법에 따라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다. 지금까지 100만 명이 해당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했으며, 법안은 면허 발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민 신분 판단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준 기자

CPU AI 설교연구소 | 세계적인 기독교인문학회 | 미국 독립방송 공동 주관

## AI 방송 아카데미

유튜브 기획, 촬영, 편집, AI 영상제작을 하루에 끝내는 미디어 실용 훈련

3000여 명의 수강생이 수강한 AI 방송 아카데미

유튜브·촬영·편집·AI 음악 등 미디어 실용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번 행사는 CPU AI 설

## 유튜브부터 AI 영상·작곡까지 AI 방송 아카데미

5월 13일 AI 방송 아카데미가 부에나파크교회(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개최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튜브·촬영·편집·AI 음악 등 미디어 실용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번 행사는 CPU AI 설

교연구소, 세계적인 기독교인문학회, 미주복음방송(KGBC)이 주관한다. CPU AI 설교연구소장 이세영 박사, 미국 일상 채널을 운영하는 허당그리스, 식음료 채널 마루네, 미주복음방송 프로듀서 이윤희 PD가 강사로 참여한다. 문의: www.cpuai.org

NCLC NATIONAL COLLEGE LEADERSHIP CONFERENCE

JUNE 22-26, 2026 MALIBU, CALIFORNIA

APPLY BY JUNE 1

## 제42회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 참가자 모집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가 6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페퍼다인 대학교 캠퍼스에서 '2026 전미 대학 리더십 컨퍼런스(NCLA)'를 개최한다. NCLC는 한인 1.5세대 및

2세대 대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한인으로서의 자부심 고취를 목표로 하는, 한미연합회의 차세대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4박 5일 동안 한인 리더들과 교류하며 멘토링을 받는다.

참가 대상은 현재 대학 재학생은 물론, 올가을 입학 예정인 신입생까지 포함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미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마감일은 6월 1일(월)이다.

지원 방법: [kacla.org/national-college-leadership-conference-nclc](http://kacla.org/national-college-leadership-conference-nclc)

42nd Love Festival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y 16th, 2026 Emery Elementary School

8:00am - 2:00pm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

사랑의(마당)축제가 42회를 맞는다. 사랑의(마당)축제는 매년 5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이다.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며,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및 정보교환 등이 이뤄진다. 경품추첨, 댄스 파티 등 신나는 놀이도 마련된다.

2026년 사랑의마당축제는 5월 16일(토) 오전 10시-2시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Emery Elementary School'(8600 Somerset St, Buena Park, CA 90621)에서 열린다. 남가주 지역 교회 25개 장애부서와 장애인 단체 15곳, 지역 커뮤니티 10여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 Solar & Roof |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K-Urban Builders** | 213-310-1800 | 213-798-2200

LA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 어머니

긴 세월 저희를 품어 주신 어머니

아름다운 삶의 흔적 위로

당신의 사랑은

고요히 스며들어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곁을 지키며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센터메디컬그룹**

# 예장 백석, 백석대신 등 5개 교단과 통합 “연합 앞장”

교단 설립 후 이번까지 총 9차례 통합 지난해 소속 교회 수 약 1만 개에 도달 장종현 목사 “주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

예장 백석총회(대표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5일 오전 천안 백석대학교 교회 백석홀에서 예장 백석대신총회(총회장 강안실 목사) 등 모두 5개 교단과의 통합을 선언하는 통합환영감사예배를 드렸다.

앞서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백석’으로 교단 명칭이 바뀌는 것에 반대해 그간 별도로 교단을 운영해온 백석대신총회와 교단을 합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2월 수원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백석대신총회 소속 약 300개 교회가 백석총회로 복귀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를 그대로 사용하며, 회기와 역사도 기존 백석총회의 그것과 같다. 백석대신총회의 노회는 그대로 인정되고, 역대 총회장들은 증경총회장으로 예우된다.

이날 통합환영감사예배는 백석대신총회뿐만 아니라 통합한 다른 4개 교단들(합동연합, 국제선교, 예녹, 합동연대)까지 포함해 모두를 환영하는 자리였다. 백석총회는 1978년 교단 설립 후 여러 차례 통

합을 거치며 지난해 이미 소속 교회 수 약 1만 개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번이 9번째 통합이다. 다만 백석총회는 이번 통합 후 교단 전체 교회 수가 얼마가 됐는지는 이날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백석 측은 “이번 통합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체성 위에 세워진 하나 됨의 결실이자 한국교회 연합의 귀한 열매”라며 “우리 총회는 앞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분열되고 흩어진 교단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환영감사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김동기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가 사회를 본 1부에선 고기성 장로(예장 백석 부총회장)가 기도했고, 김응열 목사(예장 백석 회의록서기)의 성경봉독과 백석-백석대신 장로합창단의 특별 찬양 후 양병희 목사(예장 백석 증경총회장)가 ‘백석은 꿈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창 13:14-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양 목사는 “백석의 출발은 매우 초라했다. 3평의 신학교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 개의 대학에서 3만 명의 학생들이 기독교 정



통합환영감사예배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무장되어 글로벌 리더로 커가고 있다”며 “총회는 한국교회 중심 교단으로 생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겠다는 백석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계신다”며 “사분오열된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장로교회의 연합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 됨의 꿈을 잃지 않는 백석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승수 목사(예장 백석 부총회장)가 사회를 본 2부에선 박종호 목사(예장 백석 사무총장)의 경과보고 후 통합한 5개 교단 대표로 예장 백석대신 총회장 강안실 목사

대한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이정익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홍사진 목사가 축사를,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축시를 각각 전했다.

이정익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미래가 보인다. 용단을 내려 통합에 임하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며 “백석총회는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고 포용력을 발휘했다. 이 물결이 한국교회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름다운 하나 됨을 이루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며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이 응답하셨다. 성경적, 신학적으로 하나 됨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고 했다.

백석총회는 이날 ‘우리의 다짐’을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선교사님들이 물려준 성경적 신앙, 그리고 연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장로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일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영 기자

## 영화 ‘밀양’이 던졌던 질문... 교회는 답을 찾았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은 기독교적 주제인 죄와 구원을 인간 감정의 균열 속에서 탐구하는 작품이다. 이 영화는 교회가 제시하는 ‘용서’와 ‘구원’의 언어가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충돌하고 비껴가는지를 집요하게 포착해 기독교계에 커다란 물음을 던졌다.

영화 속 가해자가 “이미 신의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은혜 중심의 구원 교리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단절과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제기하며, “신앙이 인간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에게 긴 여운을 남긴 영화 ‘밀양’이 기독교 영화제인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통해 다시 한 번 관객들을 만난다. 이 영화가 개봉한 지난 2007년 이후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교회는 ‘밀양’이 던진 도전적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을까?

제23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영산극장과 신촌 필름포럼에서 ‘Knockin’ 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매년 가을에 열렸지만 올해는 봄으로 시간을 옮겼다. 이에 대해 배혜화 영화제 조직위원장은 4월 30일 필름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봄처럼 축제 같은 영화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이번에 ‘인간,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한국 영화 특별전’을 마련해 영화 ‘밀양’을 상영한다. 한국 영화의 걸작들을 신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인간의 죄와 구원을 기독교적 시선으로 깊이 있게 해석해보기 위한 특별전이다.

영화제 측은 ‘밀양’에 대해 “이 영화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언어들 하나씩 무너뜨린다”며 “죄와 구원, 용서와 믿음은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끝내 감당해야 하는 상태로 남는다. 그래서 ‘밀양’은 보고 난 뒤가 더 길다. 이해하기

보다, 계속 붙잡히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한국 영화 특별전’에선 ‘밀양’ 외에도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와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선 총 31편(장편 23편, 단편 8편)이 선보인다.

영화제 주제인 ‘Knockin’ On’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신앙과 삶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 아내기 위해 정한 것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영화제는 이른바 ‘샤이 크리스천’을



영화 ‘밀양’의 스틸컷

주요 대상으로 해 진행된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이를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2030 세대가 이번 영화제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재발견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김진영 기자

###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요,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호,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 발행인 : 이인규
- ▶ 편집국장 : 맹창현
- ▶ 고문번호사 : 정찬용
-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 E-mail : chdaily@daily.com
-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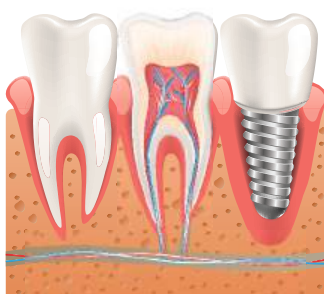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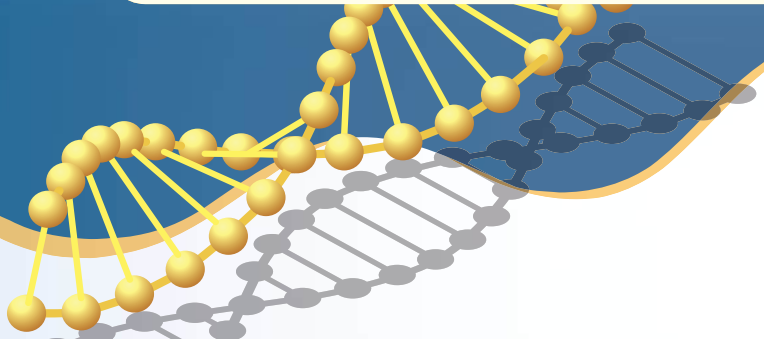
## 올림픽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 사람을 살리는 슈퍼푸드, Teloyouth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 Teloyouth의 특징

-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회복
- 생체나이 검사에서 13년 젊어진 사례
- 재구매율 91%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12가지 글로벌 품질인증
- 6가지 임상실 (독일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노르웨이 병원 등)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뿔뿔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http://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세포 신호 기술력으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36배 생산 · 배출 · 활성화하여 건강 회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 Teloyouth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재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 소개

- 5월 9일(토) 오후 2시
- 예약 필수
- 문의 : 714-732-8477 폴 킴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http://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http://www.TeloYouthKorean.com)

###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폴 킴 (TeloYouth 수석코치)

☎ 714-732-8477



TELOYOUTH

[www.TeloHealing.com](http://www.TeloHealing.com)

# 폐암도 뛰어넘은 무한의 수동태 사역

캘리포니아 남부 경제의 대동맥인 405번 고속도로 인근,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진 '어바인'. 거의 매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선정하는 '안전한 도시'에 이름을 올리는 이곳은 그 명성만큼이나 도시 곳곳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 가운데 흰색과 코발트블루가 조화를 이루는 건물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끈다. 도로 쪽에서 바라보면 건물 모퉁이 위로 솟은 커다란 십자가가 '베델교회'임을 한눈에 알게 해준다.

**'희년', 세계 선교사들을 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 분주한 발걸음이 오간다. 창립 50주년 기념 잔치가 한창이다. 바쁜 와중에도 낯선 방문객을 향한 따뜻한 인사는 빠지지 않는다. 이번 행사의 이름은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희년으로 상징되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베델교회가 마음을 모은 자리다. 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다. 이제 그 흩어진 선교사들을 한데 모아 선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김한요 담임목사의 비전이 이번 행사로 결실을 맺었다. 김한요 목사는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각 나라에서 묵묵히 희생해 온 선교사님들께 쉬와 안식,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민 목회자들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꿈도 있고요."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선교사들과 미국 전역의 한인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닷새 동안 이어진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저명한 설교가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눴다. 베델교회가 창립 50주년 행사를 안으로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섬김의 잔치'로 외연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간직해 온 건강한 자존감 덕분이다. 그 자존감의 뿌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고백에 있다.

"이웃 교회 장로님이, 베델교회는 들여다볼수록 '와서 보라'고 당당히 외치며 사역하는 교회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지난 50년을 돌아봤습니다. 베델의 오늘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3년째 교회 주제곡 가사를 직접 써온 작사가이기도 한 김한요 목사는 그 마음을 담아 2026년 주제가 'Come & See 50'의 가사를 썼다. 누구든 베델교회에 와서 보고, 베델

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겼다.

### 크리스마스에 받은 뜻밖의 선물

앞만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복음의 등불을 들고 달려온 김한요 목사에게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지난해 말, '폐암'이라는 진단이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한국 방문 길에 MOU를 체결한 한국의료재단 IFC 종합검진센터에서 중년이라면 한 번쯤 받아야 할 정기검진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소견이 나왔다. 미국으로 돌아온 김 목사는 CT 촬영과 조직검사를 통해 재검을 받았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3개월을 보낸 끝에 폐암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탄예배를 준비하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암을 주셨구나' 싶었습니다. 덤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에 자각 증상이 전혀 없었던 탓에 연말연시 뻘뻘한 일정을 모두 소화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잡은 "나는 암환자다"라는 생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35년 담임 목회자로 살아오며 몸을 무리하게 써온 탓이라 여겼다. 김한요 목사는 올해 2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의심 소견부터 재검, 확진, 수술, 회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그에게 아픈 성도들을 향한 깊은 공감의 눈을 열어주었다.

"아파보니까 비로소 아픈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더군요.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확진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의 불안함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해가 됐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픈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보면 비로소 보입니다. 말 안해도 마음이 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 사역'

김한요 목사가 베델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것은 2013년 6월이다. 그는 지난 13년을 "배워온 모든 것을 다듬어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는 세월"이었다고 회고한다.

"베델은 저의 사역 인생에서 백미입니다. 설교철학과 목회철학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죠. 말씀 목회의 기초 위에 학교 사역과 매일 큐티 사역 등 다음 세대를 향한 목회의 터전이 더욱 넓어지고 튼



어바인 베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실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수동태 사역'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했다. 자신이 먼저 꿈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에 떠밀려 꾸게 된 비전이라는 의미다.

"베델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역량 있는 크리스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사립 기독교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하나의 말씀으로 큐티를 나눌 수 있는 '큐티인' 보급에 힘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담임목사님이 세대를 아우르는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교회로 더욱 다져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12월 말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한요 목사는 퇴임 후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평생 이민교회 목회자로 살아온 만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 교회 목회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일을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다. 긴 세월이 쌓아 올린 베델교회와 김한요 목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베델교회 &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는 지난 1976년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세워졌다. 기독교 선교연맹(C&MA) 소속 교회로 전통적인 개신교 신앙고백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7,000여 명의 등록 교인과 약 30명의 부교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

베델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를 모토로 삼고 본당과 비전센터, EM 채플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채플과 예배 공간을 활용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다. 최근 차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아부부터 고등부, 한어중고등부, 장애우들을 위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기독교 가치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또 청장년층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들과 시니어들을 위한 사

후 세계에 대한 가치관 정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인적인 신앙고백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20여 개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4대 김한요 담임목사는 동부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다.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밟아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 매사추세츠주와 커네티컷주 등 미 동부 지역에서 담임목회를 했다. 특히 앰허스트에서는 영어 목회(EM)를 직접 개척하며 차세대 사역에도 힘썼다. 지난 2005년에는 캘리포니아 세리토스 장로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베델교회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의 활동 외에도 교육과 선교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베델교회가 운영하는 '베델전통학교' 재단 이사장, 큐티 확산을 위한 큐티엔 아메리카, 실크 웨이브선교회, 선교 단체 지피 등에서 이사직을 맡아 선교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쁨으로 리셋', '인생의 블루프린트 설계법',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 '요한 계시록 강해', '러프 레터', '침,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다' 등이 있다. 신정호 선임기자



##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 파키스탄 편자브주 아동 결혼 금지 법안 통과, 혼인 연령 18세로 상향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 편자브주 의회가 아동 결혼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제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4월 29일 보도했다. '편자브 아동 결혼 억제 법안 2026'은 정부와 야당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Pixabay

해당 법안은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승인됐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파키스탄 내 조혼과 강제 결혼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미성년 소수 종교 여성들이 겪어온 강제 결혼과 성적 착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혼인 연령 18세로 통일... 법적 기준 정비**  
새 법안은 기존 1929년 법을 대체하며 남녀 모두 최소 혼인 연령을 18세로 상향했다. 이는 신드, 발루치스탄, 이슬라마바드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편자브주 역시 동일한 법적 틀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수사와 보석, 판결, 보호 결정 전반에 걸쳐 이 원칙이 적용된다.

법안은 미성년자가 결혼에 연루된 경우 이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명시했으며, 납치나 강압 상황에서 이뤄진 동의는 법적 판단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종교·사회적 논쟁 지속... 반대 의견도 제기**  
법안은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종교적 가치와 사회적 관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 측은 법적 일관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미성년자는 계약 행위가 제한되는 만큼 혼인 역시 성인이 된 이후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혼이 여성의 건강과 교육 기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기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력한 처벌 규정 도입... 실효성 확보**  
이번 법안은 미성년 결혼에 대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관련 행위는 체포 가능하고 보석이 제한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혼인 주례자는 미성년 결혼을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결혼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이 부과되고, 결혼에 따른 동거 역시 아동 학대로 간주된다. 또 결혼을 목적으로 한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조장한 보호자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모든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리되도록 규정됐다.

**인권단체 환영 속 집행 중요성 강조**  
기독교 및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종교적 개종을 이유로 범죄가 은폐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경찰과 사법기관의 신중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아동 결혼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볼 때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최승연 기자

# 인도 외국인자금법 개정안 논란 교회 자산 국가 귀속 우려 확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자금 규제법(FERA) 개정안이 종교 기반 기관과 비정부기구(NGO)의 자산을 국가가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4월 29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학교, 병원, 복지기관 등 오랜 기간 축적된 자산까지 정부 관리 아래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Pixabay

이번 개정안은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 의회가 7월 회기 재개를 앞둔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을 등록 취소 또는 미갱신 상태에 놓인 단체의 외국인자금 자산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요 기독교 단체들과 야당, 법률 전문가들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산 귀속 구조 핵심 쟁점... 사법 절차 논란**

논쟁의 핵심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외국인자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에도 정부 지정 기관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내 등록이 복원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후 공공기관 이전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사법적 심사 없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종교계는 행정적 실수나 서류 미비 등

경미한 사유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위축 우려... 특정 종교 영향 논란**  
CDI는 이번 개정안이 시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밝혔다. FER는 1976년 도입된 이후 외국 기부금 유입을 관리해왔으며, 2010년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등록 취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단체가 활동을 제한받거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주요 기독교 기관들도 최근 몇 년 사이 등록 취소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인자금이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책임성 강화 vs 과도한 통제 논쟁**  
인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사실상 자산 몰수에 가까운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행정 절차상의 오류까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외국 자금과 국내 자금이 혼합된 자산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최승연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미션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0시) 오전 8시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일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참배 &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청소년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층 주일영광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와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진 성령의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새벽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u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0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26-0300, http://rpcsc.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일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라인) 5:30am

##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요일 3시  
LA 밸트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론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청년부 오후 2:30

##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이드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십만인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토) 새벽 6:00

##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평일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성령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 십자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코리 브룩 박사. ©Christian Post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코리 브룩의 기고글인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는가?'(Did God need to kill His own Son?)를 최근 게재했다. 코리 브룩 박사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성 콜롬바 자유교회의 목회자이며, 에든버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에서 ‘필요했다(need)’, ‘죽였다(kill)’ 같은 단어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일상 언어에서 ‘죽인다’는 표현은 분노나 복수, 혹은 비이성적 감정에서 비롯된 임의적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신학적 언어는 이런 일상적 뉘앙스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십자가 사건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행동하신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적 언어가 신중한 사고 자체를 시작도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의도일 때가 많다. 형벌 대속(대속적 속죄)을 비판하는 이들은 자극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예컨대 “우주적 아동 학대(cosmic child abuse)”라는 표현은 진리를 설명하기보다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말이다. 우리는 이런 감정적 프레임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이 요구하는 만큼 정확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제 속도를 늦추고 몇 가지를 구분해 보자. 십자가는 필요한 사건이었는가?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자유가 있는가? 주지 않으실 자유도 있는가? 하나님께 ‘필요’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마치 보석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듯, 이 질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자.

하나님께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어떤 필요도 없다. 이는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힘에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 밖에 존재하는 어떤 도덕 법칙이 하나님을 얽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감정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으로 나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창조하실 자유도 있고 창조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으며, 아들을 주실 자유도, 주지 않으실 자유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요구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우주적 법칙이 강제했기 때문도 아니다. 십자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선물이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없었는가? 여기서 논의가 깊어진다.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외부의 강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실 자유도 있으시지만,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대속적 정의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선택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며 사랑을 베푸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공의를 이루면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부여하셨다. 만약 공의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용서만 하셨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행동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모순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외부의 강제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자신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필요’는 자신의 의로운 성품에 일관되게 행동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면서도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야 했다.

요약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운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희생을 통한 대속적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는가’**  
여기서 감정적 반응이 최고조에 이른다. “우주적 아동 학대”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이 수동적인 성자를 일방적으로 죽이는 존재로 강조하는 데서 나온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말한다. 첫째,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둘째,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로마서 8:32)라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로마 권력이 그를 죽였다. 대제사장이 그를 넘겼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도 책임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사도행전 2:36)고 말한다. 더 나아가 복음을 믿는 모든 죄인은 결국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으셨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분 위에 공의의 심판을 온전히 행하셨다. 동시에 성자는 기쁨을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히브리서 12:2).

성경은 “우리는 그를 하나님께 맡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이사야 53:4-5)라고 말한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그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로마서 3:25),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사도행전 2:23)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이나, 성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 십자가 사건은 ‘우주적 아동 학대’가 아닌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다. 성자는 사랑으로 이 길을 선택하셨다. 둘째,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셋째, 부활은 예수의 의로움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예수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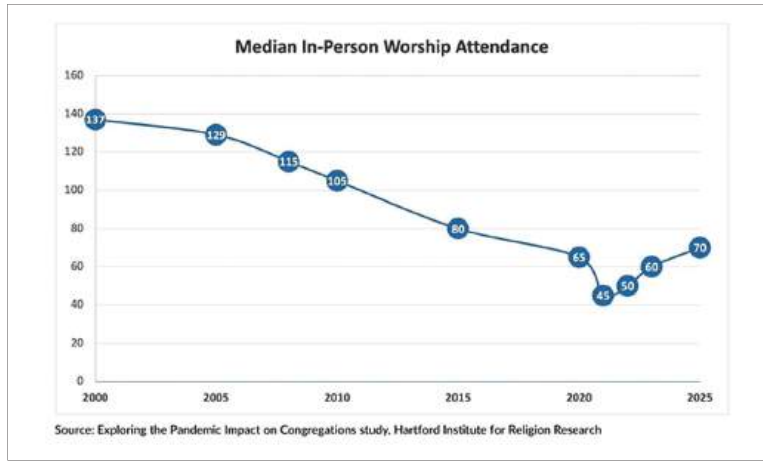
성부 하나님은 성자의 의지에 반하여 그를 죽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이다.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자신의 희생으로 만족시키신 사건이다.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이 이 모든 계획의 동기였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진노를 쏟으셨으며, 그를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다.

최승연 기자

# 美 교회, 코로나 이후 평균 예배 출석률 최고치 기록



연도별 예배 참석률 평균 지수. ©SIGNS OF REBOUND AMID UNEVEN RECOVERY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교회의 대면 예배 출석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회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트퍼드종교연구소(HIRR)가 발표한 EPIC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교회의 주간 대면 예배 출석자 수 중값은 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65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 기간 동안 45명 수준까지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반등이다.

그러나 회복 양상은 교회별로 크게 엇갈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회 가운데 약 32%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출석자를 기록한 반면, 33%는 여전히 이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35%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유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종교단체에 속한 7,453개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p다. 교단별로는 가톨릭과 정교회의 평균 출석자 수가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음주의 개신교는 75명, 주류 개신교는 50명, 기타 종교 전통은 22명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교회의 경우 약 38%가 팬데믹 이전보다 출석자가 증가한 반면, 소형 교회에서는 이 비율이 약 21%에 그쳤다. 반대로 출석자가 감소한 교회의 비율은 소형 교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예배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교회가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전체 참석자의 약 15~20%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상황 역시 교회별로 차이를 보였다. 보고서는 약 46%의 교회가 현금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반면, 36%는 여전히 감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 수 감소와 재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교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약 47%의 교회가 자원봉사자가 팬데믹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완전히 회복됐다고 답한 교회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회복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해석했다. 연구진은 “교회는 팬데믹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HIRR 공동 연구자인 앨리슨 노턴(Allison Norton) 박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재조정’이라며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 자신들의 사역 방향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회들은 전례 없는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많은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에 고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美 테네시주 교회, 400대 차량에 무료 주유... 유가 급등 따듯한 나눔



▲자원봉사에 나선 교인들이 행사 안내판을 들고 있다. ©인스타그램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주유 혜택을 제공하며 따듯한 나눔을 실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테네시주 녹스빌에 위치한 ‘오버커밍 빌리버스 교회’(Overcoming Believers Church)는 최근 지역의 썸즈업 엑스 주유소에서 ‘가스 앤 글로리’(Gas & Glory) 행사를 열고 수백 명의 통근자들에게 무료 주유 혜택을 제공했다. 약 1,500명의 교인이 출석하는 이 교회는 이날 행사에서 총 400대 차량에 각각 20달러(약 2만 9,6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지원했다.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연료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무료 티셔츠를 나누고 어린이들에게는 사탕을 건네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또 참가자들을 부활절 주일예배에 초청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이어갔다.

교회 대변인 카렌 스윈트(Karen Swint)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데릴 아놀드(Darryl Arnold) 담임목사에 대해 “이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언제나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오버커밍 빌리버스 교회는 이전에도 유사한 무료 주유 행사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 반응은 특히 뜨거웠다고 한다. 스윈트는 “올해가 역대 최고였다”며 “해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한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말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적으로 헌신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라고 소개한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증거와 예배의 공동체”라며,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행사가 더 큰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최근 급등한 유류비가 있다. 중동 지역 긴장과 국제 정세 불안 속에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약 5,900원)를 넘어섰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토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슬)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임베임)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형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탄**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5:30/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기도회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참회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 학생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모집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역임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에는 수백계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떡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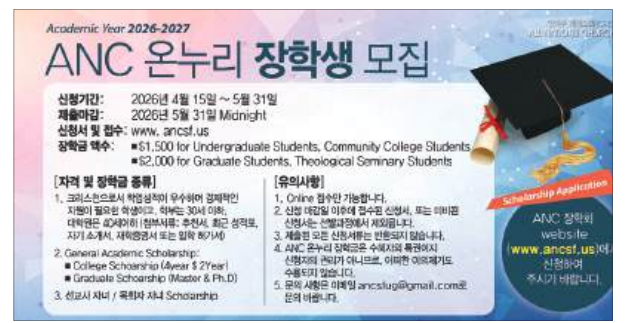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2026-2027 ANC 온누리 장학생 모집

ANC 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2026-2027학년도 'ANC 온누리 장학생'을 모집한다. 교회 산하 ANC 장학회(ANC Scholarship Foundation)가 주관하는 이번 장학생 선발은 기독교 청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 자정까지다. 지원서는 장학회 웹사이트(www.ancsf.u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장학금은 학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에게 1,500달러, 대학원 및 신학대학원 학생에게는 2,000달러가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크리스천으로서 학

업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다. 연령 기준은 학부 과정의 경우 30세 이하, 대학원 과정은 40세 이하이며, 추천서와 최근 성적표,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종류는 ▲일반 학업 장학금(4년제 및 2년제 대학, 석사 및 박사 과정) ▲선교사 자녀 및 목회자 자녀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장학회 측은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마감일 이후 제출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문의: ancstfug@gmail.com



Academic Year 2026-2027  
**ANC 온누리 장학생 모집**

신청기간: 2026년 4월 15일 ~ 5월 31일  
제출마감: 2026년 5월 31일 Midnight  
신청서 및 접수: www.ancsf.us  
장학금 액수: \$1,500 for Undergraduate Students, Community College Students, Theological Seminary Students; \$2,000 for Graduate Students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크리스천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학부 30세 이하, 대학원 40세 이하, 입학허가서, 추천서, 최근 성적표,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College Scholarship (Award \$ 2/year), Graduate Scholarship (Master & Ph.D.)  
3. 선교사 자녀 / 목회자 자녀 Scholarship

[유망사항]  
1. Online 접수 가능함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마감일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혜자가 없습니다.  
5. 문의 사항은 대학원 ancstfug@gmail.com로 문의 가능합니다.

ANC 장학회 website: www.ancsf.us에 신청서와 수시기 바랍니다.

## 제27기 총현 장학생 모집 마감 5/30

총현선교교회 장학부에서는 2026-2027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5월 30일(토)이다. 장학금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일반 장학금: 기독교 신앙으로 교회에 사회에 공헌할 인재 육성 ▲박태용 장로 장학금: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 ▲정상우 목사 장학금: 선교사 자녀를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육성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 교인  
2. 인가된 4년제 대학 및 인가된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또는 신학 석사) 풀타임 재학생 및 입학이 허가된 자(박태용 장로 장학금은 2년제 대학 재학생 포함)  
3. 일반 장학금 및 정상우 목사 장학금 학점 3.0 이상 박태용 장로 장학금 학점 2.75 이상  
4. 박태용 장로 장학금- 신청자 및 신청자 부모의 전년도 텍스 리턴(양식 1040)  
5. 학생이나 부모가 남가주 거주(



선교사 자녀는 거주 제한 없음)  
6 가족 당 한 명, 동일한 신청자는 최대 2년 가능

문의: 총현선교교회 장학부 scholarship@choonghyun.org  
총현선교교회 장학금 신청 정보: https://www.choonghyun.org/main/sub.html?Mode=view&boardID=www38&num=13917&page=&keyfield=&key=&bCate=

## “청년들의 제안으로 성경통독 소그룹 시작돼”

→ 3면 기사 <소그룹 지역교회 활성화>에 이어서 청년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시작된 성경 통독 모임

평강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교회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사례로 소개됐다. 송금관 목사는 부임 당시 전교인이 8명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풍요로운 삶’과 ‘작은 목자의 삶’ 교재를 중심으로 소그룹을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인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삶’ 과정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설정하고, 이어지는 양육 과정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해 왔다. 고령의 성도들에게는 하루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안내하며, 말씀을 통한 내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강교회는 청년들의 자발적 제안으로 시작된 ‘성경 통독 모임’과 같은 바티엄 방식의 소그룹을 통해 공동체의 자생력을 확인하고 있다.

송 목사는 “성도들이 자신의 신

앙을 직접 말로 고백하고 나누는 과정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스템의 허점, 타성에 젖은 부분 갱신

기존 사역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려는 교회들도 눈에 띄었다. 새생명오아시스교회 김일형 목사는 오랜 소그룹 운영 경험 속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LA평화교회 김은목 목사는 ‘예배’의 회복을 강조해 왔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그룹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그룹, ‘교회 사역의 도구’ VS ‘성화를 돕는 것’

한편, 개척 초기 소그룹에 대한 회의론과 팬데믹이라는 난관을 겪은 치노 밸리 아름다운교회는, 역설적으로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겪으며 소그룹 사역의 필연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성도들 사이에서 소그룹의 필요성이 자발적으로 제기되며 모임이 시작되었으나, 리더 교육의 부재로

인한 운영의 미숙함과 구성원 간의 불만 등 새로운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에 교회사역의 도구로서가 아닌, 성도 개개인이 ‘성화의 과정’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본질적인 소그룹 비전을 정립하고 리더 양육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림픽 장로교회는 주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삶에 적용하는 방식의 소그룹 운영을 통해 실천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마다 상황과 방식은 다르지만, 소그룹이 야말로 교회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핵심 통로라는 데 공감했다. 한 목회자는 “소그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성도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약 1년간 진행되며, 각 교회 현장에서 실제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 전기세 50~90% 절감 \*

**FRE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 213.500.8000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 213.798.22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가장 아름다운 등대, 십자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등대(燈臺)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등대를 통해 놀라운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넓은 바다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등대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항로를 안내해 줍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게 하며, 목적지에 이르도록 돕습니다. 또한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암초와 절벽 그리고 얇은 수심을 알려 줍니다. 등대는 귀항(歸港)을 돕습니다. 등대는 떠나는 배보다 돌아오는 배에 더 소중합니다. 폭풍우를 통과해 항구로 돌아오는 선원에게 등대는 소망입니다.

등대는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멀리 비추기 위함입니다. 등대는 사명을 위해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내고, 거친 폭풍우를 견뎌야 합니다. 등대

는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등대는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등대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빛을 비춥니다.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등대는 바다 전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배가 다음 항구를 찾을 만큼만 비춥니다. 등대와 등불은 다르지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시 119:105).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걸을 수 있도록 비추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밝히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등불은 모호함 속에 담긴 은혜입니다. 등불은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호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호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십니다. 등불은 작지만 충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만큼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 만큼의 빛, 한 걸음을 내딛을 만큼의 빛,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빛을 선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등대를 묵상하는 중에 가장 아름다

운 등대를 떠올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등대입니다. 십자가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요 14:6). 십자가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비춥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등대가 더 빛나는 것처럼, 십자가는 어둠을 밝히는 소망의 빛입니다. 십자가는 암초 앞에 선 영혼들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십자가는 거친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등대는 맑은 날보다 폭풍우 치는 밤에 더 필요합니다. 십자가도 고난 없는 날보다 눈물의 밤에 더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고통을 통과한 사랑의 불빛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걷는 한,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대입니다. 배에게 등대는 항구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십자가는 귀항(歸港)으로의 초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아버지 집에는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잔치가 있었습니다. 돌아갈 항구가 있다는 것,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저는 지금 모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떠나는 날부터 집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갈 집을 동경합니다.

등대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

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 주는 존재입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어 주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통제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백과 공간을 주어 숨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등대가 바다 전체를 비출 수 없듯이, 부모도 자녀의 인생 전체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는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취해야 할 과제도 아닙니다. 자녀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걸작품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이 자녀 안에 심어두신 소명을 따라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로 나아갔다가 다시 항구로 돌아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내면의 항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등대는 십자가입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빛 아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등대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빕니다.

진유철 칼럼

성경 위에 다음세대의 믿음을 세우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며 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복종의 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막13:22)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아니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나타나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기존 교단들이 급격하게 쇠퇴하며 영적 공허감을 채워주지 못할 때 빈야드 운동, 캔사스시티의 IHOP, 토론토 블레싱 같은 신사도운동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직접, 직통으로 받는 개인의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체험이 성경말씀으로 검증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흘러 이상한 환희경이나 성경 밖의 계시가 임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고 계시의 완결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의 마지막장까지 경고하셨습니다.

시작은 바르지만 끝이 잘못된 것이 이

단인데, 신사도운동의 특징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하나님 체험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동안의 교회생활이나 교리공부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생생한 체험은 감정을 뜨겁게 해주었습니다. 2) 미국의 성공신학, 변영신학과의 결합이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되기를 원하시지만, 그 과정을 통해 자기중심성이 깨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인본주의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와 소속감을 확실히 제공합니다. 개인주의의 미국은 갈수록 극심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강한 소속감을 형성해 했습니다. 4)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문화와의 친화성이 뛰어납니다. 그들의 화려한 무대와 현대적 워십 음악은 예배가 콘서트나 버라이어티 쇼 같이 느껴져 젊은이들에게 쿨한 이미지를 주었지만, 거룩과 하나님경외를 잃은 예배가 되기도 쉽습니다. 5) 제도

권 교회에 대한 실망의 반작용을 흡수합니다. 전통적 성도들이 기존교회에 대해 실망할 때 '우리는 다르다. 진짜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다.' 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권위 부인의 문화와 결을 맞추었습니다. 기존 권위를 대항하듯 외적인 경건을 거부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안합니다. 6) 영적전쟁의 세계관으로 호소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신신하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기준인 성경말씀보다 개인의 체험을 앞세우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의 믿음은 오직 성경말씀 위에 세워져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dvertisement for 2026 US Christian University Fair. Includes logos and details for Talbot School of Theology,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alifornia Presbyterian University, World Mission University, Evangelical University, Gateway Seminary,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University,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 고든 창 “한국, 더 이상 미중 사이 균형자 역할 어렵다”

## 북한 무기확산·전체주의 연대가 만든 국제 안보 위기 조영... “안보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어”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과거처럼 양측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동시에 북한 문제 역시 더 이상 한반도 안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동의 폭력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중러·이란 연대, 한미일 협력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한국학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ICKS)가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북한인권위원회(HRNC)와 공동으로 4월 30일 워싱턴 D.C. 허드슨연구소에서 개최한 연례회의에서다. 이날 오후 패널에서는 북한의 무기 확산과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전략적 공간 축소, 한미동맹 재편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미국 중심 동맹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고립된 약소국이 아니라, 무기와 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며 전쟁과 분쟁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무기 확산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인명 피해와 인간 존엄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인권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장 직접적으로 인권과 가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더글러스 스트루샌드(Douglas Strusand) 해병대대학 교·세계정치연구소 연구원이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통점을 전체주의적 통치 구조에서 찾으며, 이들 체제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구조 위에서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루샌드 연구원은 이들 체제의 이념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는 것”이라며, 자유사회가 이 문제를 단순한 전략 경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인권과 안보의 연결고리가 지워져서는 안 된다며,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사회 사이의 대결에는 도덕적 차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무기 확산은 외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무기와 기술이 사용되는 지역의 민간인 피해와 폭력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브루스 벡톨(Bruce E. Bechtol Jr.) 앤젤로루립대 교수는 북한이 이란의 미사일 능력과 무기체계 구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이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쟁 시기 스커드 미사일 거래에서 본격화됐으며, 이후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완성품뿐 아니라 생산시설과 개량 기술까지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벡톨 교수는 이란이 보유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상당 부분이 북한제 스커드, 노동, 무수단 계열 미사일 기술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는 북한이 이란에 “유럽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중동 전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이란의 대리세력이 사용하는 로켓과 대전차무기, 소형화기, 터널망에도 북한산 무기와 기술의 흔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벡톨 교수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사용된 여러 무기가 북한의 중동 확산 네트워크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뉴켄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도 벡톨 교수의 발표를 두고 북한의 중동 무기 확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란과 그 대리세력에 제공한 무기와 기술이 중동의 폭력 구조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비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의 무기 확산이 단순히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판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보여줬다. 북한이 제공한 무기와 기술은 중동에서 실제 폭력과 사망, 민간인 공포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곧 북한 정권의 외화 획득 방식이 국제적 인권 피해와 연결돼 있음을 뜻한다. 앤드루 스코벨(Andrew Scobell) 조지타운대 교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묶는 이른바 ‘CRINK’ 구도를 설명했다. CRINK는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의 앞글자를 딴 표현으로, 미국과 동맹국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계를 설명하는 틀이다.

스코벨 교수는 이 구도가 아직 공식적인 다자 군사동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타난 전략적 연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수품 부족과 전력 소모를 겪으면서 북한과 이란의 지원 필요성이 커졌고, 그 결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CRINK 구도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병력을 제공하면서 연료,



왼쪽부터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고든 창(Gordon Chang),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식량, 현금, 군사기술 지원 등을 얻고 있으며, 중국과는 무역과 관광, 외교적 후원을 통해 체제 생존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일관계도 이 같은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다뤄졌다. 유키 타츠미(Yuki Tatsumi)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일관계가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리셋’인지 과거처럼 일시적 개선 뒤 다시 갈등으로 돌아가는 ‘데자뷰’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봤다. 타츠미 연구원은 중국의 부상, 북한 위협, 북러·북이란 관계 심화가 한일 양국을 다시 가깝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외교가 동맹을 거래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일수록,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더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고든 창(Gordon Chang) 게스톤연구소 연구원에게서 나왔다. 창 연구원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양측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를 ‘고래 사이의 새우’로 표현해 왔지만,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고래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광범위한 전략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봤다. 창 연구원은 “워싱턴도 베이징도 서울이 균형자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양측 모두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고, 한국의 운신 폭은 훨씬 좁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창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의 평화 체제 구상에 호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으며, 북한은 서울이 원하는 평화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대북 관여와 평화체제 논의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태도 변화 없이는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기술동맹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ICKS 연구원은 반도체, AI, 사이버, 양자기술, 바이오, 에너지 기술이 더 이상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이중용도 기술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구조를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 자체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중국은 단순히 미국과 한국, 일본 기업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대체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AI 시대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AI 생태계와 한국의 반도체 역량이 서로 깊이 연결돼 있다며, 한미 양국이 공급망, 사이버보안, 공동 연구개발, 디지털 플랫폼, 방산 분야 상호운용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허드슨연구소 연구원도 한미 기술협력이 단순한 반도체 협력을 넘어 미래

전 기술로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드론과 AI 기반 전장, 이른바 지능화된 전쟁 양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며, 한미 기술동맹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북아 지휘체계 재편도 주요 쟁점이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모린 앤 마이크 맨스필드 재단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자체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조건 기반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 기준을 낮춰 정치적으로 서두를 경우 실제 위기 상황에서 위험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의 지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반도와 대만海峡에서 동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광범위한 책임과 동북아 지휘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동북아사령부 신설이나 미군 전력 재배치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민감성, 대만 유사시 개입 문제, 병력과 탄약 배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에서 한미동맹의 본질이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가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담긴 정신을 언급하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늘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맹은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원칙, 목표 위에 세워진 관계라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것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 213-434-8947

fi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신병욱 칼럼

#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신 병 옥 목사  
미라클LA교회  
비전 50 선교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 2:18)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시간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 부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속에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도록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 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라고 말씀하며,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와 공동체를 지탱하도록 친히 만드신 창조의 기본 질서인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이러한 가정의 힘과 부모 세대의 희생을 잘 보여줍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부모 세대는 가정과 나라를 붙들었습니다. 피난길에서도 자녀를 지켰고, 굶주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녀들을 살려냈습니다. 이후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은 낯선 땅에서 흘린 땀으로 조국 경제의 씨앗이 되었고, 월남전쟁 과병 세대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뜨거운 사막에서 견뎌고, 원앙어선의 선원들은 거친 바다 위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 시대 부모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못 배우고 못 먹어도 자녀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새벽 시장으로 향하던 어머니들, 야간 공장을 지키던 아버지들, 자녀 학비를 위해 평생 허리를 펴지 못했던 부모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산업화를 숫자로 기억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꿈을 바쳤던 이름 없는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젊은 세대는 노인들을 “틀딱”, “꼰대”라고 쉽게 비하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 변화 속에서 세대간의 갈등과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한 세대를 조롱하는 태도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 교육과 기회의 대부분이 이전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세대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는 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레 19:32)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전통적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역사와 희생,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오늘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의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와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의 믿음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기심과 음란, 중독과 분열, 세대 갈등과 물질만능주의를 통해 가정을 흔들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부부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게 하며,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날 가정 해체와 극단적 개인주의의 확산은 단지 사회 현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지키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헌신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가정의 가치와 부모 공경의 정신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다움은 관계 속에서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이러한 인간다움을 가장 먼저 출발하게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며, 가정을 통해 부부의 사랑이 깊은 신비로 들어가며, 가정을 통해 부모는 숭고한 희생을 감당하고, 가정을 통해 자녀는 감사와 존경을 배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 담아 두신 축복입니다. 하여 가족이 함께 1분이라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는 천지창조에서 시작된 가정의 사랑과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지켜내는 사회만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부모님께 마음을 전해 보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전해 보세요. “덕분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김한요 칼럼

# 신앙은 선택이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최근 버지니아주 한 가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엘리트 부부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비극적인 선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자녀가 함께 있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이 부부는 명문 대학에서 만나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와 갈등 앞에서, 그들이 내린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남겨진 자녀들이 겪었을 충격과 상처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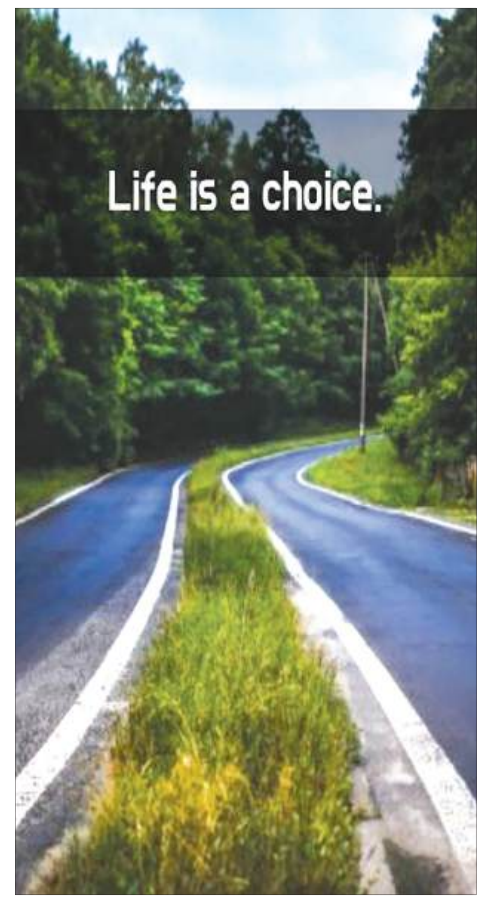
우리의 삶도 결코 순탄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내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용서를 택하고, 어떤 이는 분노를 붙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안락함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분명한 믿음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거창한 결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됩니다. 누구와 가까이할지 친구를 선택하는 일,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할지 외면할지 결정하는 순간, 해야 할 말을 할지, 침묵해야 할지를 분별하는 선택, 유혹 앞에서 물러설지, 믿음을 지킬지를 결정하는 순간들—이 모든 것이 신앙의 선택입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쉽게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삶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서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SHALOM ACUPUNCTURE

## 샬롬한의의원

Diamond Bar 샬롬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1st Time Discount

# 50%

with Google Reviews

-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 TOP7 미스트롯4 Live in LA



## 멕시코 크루즈 선상콘서트



카탈리나섬 투어, 프라이빗 선상 공연  
멕시코 엔세나다 - 마리아치 공연 & 민속춤  
8월 24일(월)~28일(금), 4박 5일간  
28일 금요일 오전 하선 예정, 얼리버드 이벤트 후 가격은 변경됩니다.

6월 5일까지  
얼리버드 이벤트  
미스트롯4  
공연 티켓 증정  
선착순 마감

**\$899**

인사이드

**\$1079**

오션뷰

**\$1299**

발코니

1인당/2인1실 기준 - 예약시 완납 Non Refundable, 4박5일 유람선 비용, 모든 세금(포트세, 정부세) 포함



여행의 명문 -  
**et ELITE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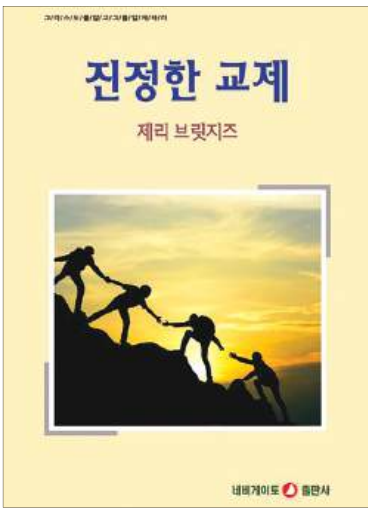
엘리트 투어

**213·386·1818**

745 S Oxford Ave. 1F, Los Angeles, CA 90005  
www.EliteTourUS.com email: info@elitetourus.com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진정한 교제**  
 제리 브릿지스 | 네비게이토  
 208쪽 | 12,000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으며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바쁘고 자신의 일에 빠져 있는 나머지 서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칠 때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고 묻지만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사치레로 할 뿐입니다

- 머리말 중에서

제리 브릿지스(Jerry Bridges, 1929-2016)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잘 알려진 네비게이토 선교회 간사이다. 해군 장교로 한국전에도 참전했고(책에서 언급함), <거룩한 삶의 추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겸손의 축복> 등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진리를 성경의 바른 교훈에서 끌어내 매우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힘이 있는 작가다.

많은 사람이 브릿지스의 <진정한 교제>를 추천해서 언젠가 꼭 읽어 봐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마침내 그 기회를 얻었다. 네비게이토 책자는 글씨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표지 디자인 등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처음 책을 받아봤을 때 1990년대 책이 아닌가 오해할 수는 있지만, 내용만큼은 참신하고 진실하고 유익하다.

<진정한 교제>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히 브릿지스는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두고 씩씩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결과물로서 책을 내는 작가라,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나누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갖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과 가르침, 격려 및 깨우침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책 원제는 'The Crisis of Caring: Recovering the Meaning of True Fellowship'인데, 번역서에서 긍정적으로 '진정한 교제'라고 바꾼 것 같다. 저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인식하고 성경으로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 책을 통해 드러냈다. 번역서 부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인 것은 이 책의 가장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자 동력,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교회는 공동 관심사로 묶인 공동체가 아니다. 사는 지역이 같거나, 연령 및 성별이 같거나, 생활 수준과 환경이 비슷해서 모인 것도 아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

도의 보혈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아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를 지향한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 까'라는 말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자원이 있다. 브릿지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면 보통 개인이 살아온 일상 또는 흥미롭게 여기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 브릿지스는 그것을 '사교적 교제'라고 부르는데, 사교적 교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거기서 멈추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로 묶였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다. '나눔'의 의미를 갖는 '교제'는 단지 말이 아니라 시간, 은사, 재능, 물질, 기도, 섬김, 고난 등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참여하는 교제에 힘쓸 수 있다. 전방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을 물질과 기도로 돕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교제(나눔)'라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필요를 자신의 의무로 여겨 사랑으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 이것도 교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일꾼들을 지원하는 교제를 할 수 있고, 성령께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육적·영적)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나누는 것으로 다른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Pixabay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라는 곳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셀 그룹이나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바른 가르침과 체계적인 돌봄 및 양육 못지않게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가 세속적인 모델을 교회에 성급히 도입하고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진정한 교제'를 맞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교제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진정한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교제는 잘 조직되고 구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다. 진정한 교제는 남이 만들어 주고,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다. 복음의 은혜로 믿는 자가 속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다. 진정한 교제는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하면 거할수록 서로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브릿지스가 낀 교제의 위기감 속에 살아가는 독자들이, <진정한 교제>를 통하여 참된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서성록, 한 점의 그림] 마르틴 루터의 '이코노클래즘(iconoclasm · 성상파괴운동)'

#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 성상 척결 문제에는 미온적?

마르틴 루터 이코노클래즘 인식 급진과 칼슈타트와 선명한 대비 형상, 구원 불필요... 악은 아님 숭배 않는 한, 소유 여부는 자유 부정적·긍정적 측면 양면 제시해 숭배 시 부정적, 교육 시 긍정적 율법주의에 목숨 걸고 싸웠지만 형상만은 허용-경계 사이, 중립

현대 기독교인들은 중세 후기 성상 숭배(idolatry)가 얼마나 큰 폐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이런 관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반감을 일으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카를로스 M. N. 에이레(Carlos M. N. Eire)는 당시 성상 숭배에 대해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모자를 벗고 향과 양초를 피우고 입을 맞추고 성상을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부르며, 마치 성상이 정말로 죄를 치유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만졌다(War Against Ido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1

유와 평등, 자율적 협동을 중시하는 정치 철학 - 편집자 주) 양상으로 변했고, 시민사회를 긴장시켰다.

비텐베르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에서 돌아온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우상파괴주의자들을 단념시키고 복음적 연합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런데 루터의 접근 방식은 칼슈타트의 접근 방식과 달랐고, 그들은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칼슈타트는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금지했지

로 이해했다. "하나님은 성상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며 모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된다고 선언하신다. 성화상은 역겨운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자신도 역겨운 존재가 된다(Andreas von Karlstadt, On the Removal of Image, 박경수, '1521-22년 비텐베르크의 소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국교회사학회지』 제50집, 2018, 53쪽 재인용)." 칼슈타트는 새긴 상을 만들거나 경배하는 것은 '심각하게 비성경적'이라고 간주하였다. 단지 조각품에 불과한 것을 성상이라 부르거나, 그런 것들에 기도를 하며 촛불과 향을 피우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성상을 세운다면 그것은 '악마적인 것'이다(박경수, 54쪽). 중세 교회의 제단, 성상, 성화 등이 제2계명에 금지된 것임을 들어 파괴하였으며, 나아가 오르간, 그레고리 성가 사용을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 내 성화들

통해 자체를 촉구하였다. 루터는 칼슈타트와 J. 츠빌링(Zwilling)의 급진적인 행동이 개혁의 대의명분을 손상시키고 비텐베르크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였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폭력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고려한 신중한 진행을 강조했다.

성상의 문제에 대해 루터는 복음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해지는데 하나는 구전 말씀과 세례와 제단의 성례라는 물질적인 표정으로, 다른 하나는 성경과 믿음, 은사로 전해진다고 보고, 그 정도가 어떠한 외적인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진다고 한다.

외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입장은 예배와 영적 삶에 광범위한 함의를 지니며 이미지를 바라보는 그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Against the Heavenly Prophets in Matter of Images and Sacrament, 1525). 아테네 신전을 방문한 바울을 상기하며 온갖 우상들에 둘러싸인 모습을 보면서 "야만 사람들이 너희는 모두 우상숭배자들이다(행 17:16, 22)"고 외쳤다, 우상들을 때려 부수지 않았다고 설교하였다.

바울은 그것들을 역지로 뒤엎어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동을 피우며 제단을 헐고 성상들을 뒤엎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단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 사도행전 28절 11절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과 같이 성 바울은 쌍둥이 형제(즉 Cator와 Pollux)가 뱀머리에 새겨져 있는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배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주어야 합니다(루터, '세 번째 설교, 1522년 3월 11일', 『루터 선집』 제10권, 컨폴디아사, 1987, 445쪽)."

루터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우상숭배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치운다고 우상숭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즉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면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성화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루터가 교회의 성화상이 '훈도와 선도의 유익한 도구'와 같이 이로움을 준다고 본 반면, 칼슈타트는 구약의 말씀처럼 성화상의 위협성을 경고하였다. 루터가 중세 교회의 질서를 어느 정도 계승하는 태도를 보인 데 반해, 칼슈타트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이 있더라도 폭력성을 띤 개혁은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었다. 루터는 개혁의 과정에 있어, 연약한 이들의 보호가 먼저였다. 루터는 성상의 모독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설교했다(Joseph L. Koerner, The Reformation of the Im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157쪽).

루터에 의하면, 형상은 구원에 불필요하지만 악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형상을 소유할지 말지는 자유이다.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형상, 교회, 혹은 제단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금지하신 적이 없다(Against the Heavenly Prophets in Matter of Images and Sacrament)."

성상들이 남용될 수 있으나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강제로 폐기할 필요가 없으며, 만일 교회 안에 성상을 마주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루터는 형상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라는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정적인 면'이란 형상이 예배 대상으로 숭배될 때이며, '긍정적인 면'이란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를 말한다.

형상을 가질 수도, 안 가질 수도 있으나 이런 '선택의 자유'를 필수적인 것으로 의무화시킨 것은 가톨릭 교회의 실책이며, '선택의 자유'에 따라 판단하자는 것이 성화상을 대하는 그의 기본 입장이었다.

요컨대 그는 율법주의와 도덕적 타락에 목숨을 걸고 맞서 싸운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가톨릭 교회의 형상 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으며, 형상을 배격하기보다는 허용과 경계 사이의 중립적 자세를 취했다.

서성록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구스타프 피니히, 비텐베르크에서 성상 파괴를 제지하는 루터, 예칭, 1847.

쪽)고 기술할 정도였다.

이에 당시 분개한 안드레아스 폰 칼슈타트(Karlstadt, 1480-1541)가 단호한 척결 의지를 선언하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설치된 그림과 조각상을 파괴하고 제단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운동은 '종교적 아나키즘(Anarchism, 국가·정부·자본·군대·종교 등 강압적 권위를 모두 부정하며 개인의 자

만, 루터는 성경에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허락했다(Mark C. Mattes, Martin Luther's Theology of Beauty, Baker Academy, 2017, 144쪽). 로마서 14장 23절을 인용하며 루터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교회 미술 문제를 대할 때 적용하였다.

반면 칼슈타트는 우상 금지를 명한 하나님의 계명을 유효한 것으

로 부속 제단을 제거하였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화상을 '문맹자들의 책'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화상은 귀머거리에게 벼어리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며,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며 그저 아무런 소용도 없는 육적인 물질에 불과하다(박경수, 55쪽)"고 일축했다.

비텐베르크로 급거 돌아온 루터는 1522년 사순절 기간 행한 설교를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여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기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세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등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피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정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 북한자유주간 마지막 포럼서 탈북민 대표단 증언

## 강제노동 · 인신매매 · 정보 차단 · 강제복송 · 북한군 포로 문제까지 제기

제23회 북한자유주간 마지막 의회 프로그램이 5월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에서 열렸다.

디펜스포럼재단(DFP, 대표 수잔 솔티) 주최로 열린 이날 국방·외교정책 포럼 주제는 이번 북한자유주간 주제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TRUTH will set them FREE), 자유의 길을 선도하는 북한 주민들!(NORTH KOREANS Are Leading the Way)'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졌다.

포럼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가장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탈북민 대표단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북한의 강제노동과 여성 인권 침해, 중국 내 인신매매와 강제복송, 코로나 이후의 통제 강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 대북 제재 회피 의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포로 문제 등을 차례로 증언했다.

탈북민 대표들은 북한 주민을 단순한 피해자나 구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변화와 자유 통일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탈북민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육성이 북한 인권 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탈북민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나 수혜자가 아니라 북한 변화와 자유 통일의 주체"라며 "교육과 정책 참여, 국제 활동 기회를 통해 탈북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수립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유 통일은 단순한 체제 통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사회·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자유를 찾은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희 씨는 북한 청년 돌격대 출신으로서 북한 청년, 특히 여성들이 겪는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증언했다. 이 씨는 고난의 행군 시기 부모와 동생들을 잃은 뒤 생존을 위해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이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8살부터 26살까지 청년 돌격대에서 생활했다"며 "북한은 그것을 청년의 영광이라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강제노동과 착취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임금도 선택권도 거부할 자유도 없었다"며 "이것은 명백한 강제노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 돌격대원들이 생리 중에



제23회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5월1일 디펜스포럼재단 주최로 레이번 의회 회관에서 북한자유 포럼이 진행됐다. 발표를 맡았던 탈북민 대표단과 관계자들이 자유북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 쉬지 못하고,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했으며, 폭언과 성희롱, 추행에 노출됐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그들은 약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일철 씨는 2025년 7월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최근 탈북민으로서, 코로나 이후 북한 내부의 통제와 생존 기반 붕괴를 설명했다. 평양 출신인 그는 코로나 이전 북한 주민들을 살린 것은 국가 배급이 아니라 장마당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국경 봉쇄와 지역 간 이동 차단 이후 장마당 체계가 거의 마비됐고, 주민들의 생존 기반도 급격히 무너졌다고 밝혔다.

양 씨는 2024년 압록강을 건너 탈북을 시도하다 불참해 강동 4교소에 수감됐던 경험도 전했다. 그는 "원래 700명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진 교화소에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감돼 있었다"며 "그곳은 나치 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다"고 증언했다.

양 씨는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교도소"에 비유했다. 그는 "일반 교도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관리 방식에 의문을 품거나 신앙을 가지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침묵 속에 남겨두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준혁 씨는 어민과 노동자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는 노동 착취를 증언했다. 최 씨는 "북한에서 노동은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임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의 대가는 현금미

아니라 쌀 몇 킬로그램이나 담배 몇 갑으로 대신 주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탄광과 항구, 어선 노동을 전전했고, 생계를 위해 러시아 해역과 공해상까지 나가 조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약 2년 1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고, 북한 송환 위기 속에서 국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 씨는 "북한에서 어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열악한 삶"이라며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가난만이 아니라, 그 고된 일을 하기 위해서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취급된다"며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감시를 요청했다.

이순실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제복송의 위협을 겪은 경험을 증언했다. 이 씨는 "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에서 버림받고 중국에서 팔려 다니고 다시 복송돼 감옥과 검문소에서 죽어간 수많은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 어린 자녀를 먹이기 위해 압록강을 건넌지만, 강을 건너자마자 아이와 자신이 각각 돈으로 팔려갔다고 했다. 이 씨는 "수많은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넘어간 뒤 돈으로 팔리고 있다"며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당하고, 인신과 출산이 도구처럼 이용당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로 복송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더 강하게 압박해 달라"며 "굶주림으

로 죽어가는 사람들,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팔려간 여성들과 빼앗긴 아이들의 고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이날 포럼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배광민 자유북한방송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돼 있기 때문에 외부 정보를 보내는 일이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 기사는 '진리 작전'을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쌀, 성경, USB, 전단, 라디오, 의약품, 1달러 지폐 등을 전달해 진실과 희망을 전하려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화도에서 보낸 살병이 황해남도 해안까지 흘러 들어가 북한 주민들에게 닿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거짓을 깨닫게 하는 통로"라고 밝혔다.

배 기사는 "때로는 쌀 한 병, 라디오 한 대, USB 하나가 한 사람의 삶과 한 가족의 미래를 바꾼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외부 정보를 보내는 활동이 다시 제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지한나 강제복송피해자연대 대표는 북한 정권의 대북 제재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지 대표는 북한에서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탈북을 결심했고, 두 차례 강제복송을 당한 뒤 세 번째 시도 끝에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 대표는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거래하던 중국 측 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며, 북한 정권과 중국 밀수꾼들이 압록강 일대에 수면 아래 돌다리

를 만들어 물자를 반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기에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가 반드시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감옥, 강제노동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위협과 인권 범죄를 결코 분리해서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 활동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대북 전단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김 씨 왕조가 쌓아온 거짓 선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총보다 진실을 두려워하고, 미사일보다 외부 정보를 더 두려워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햇볕은 독재자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진실과 자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김기영 씨는 북한의 세뇌 교육과 장마당 세대의 변화를 증언했다. 유치원 교사 출신인 김 씨는 북한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도자에게 충성하도록 길러진다고 "북한의 아이들은 꿈을 꾸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도 북한에 있을 때 낮에는 충성하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밤에는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며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통로이고, 자유로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언젠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 사령관은 김정은 정권이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 전쟁터로 내몰았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령관은 "이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얼굴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이들을 군법으로 처벌할 것이며 가족들까지 심각한 박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김대원 기자

### 문선영의 머니토크

##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바꿔서 매달 찾아 쓰고 싶어요

**질문** 문선영씨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72세 미스터 한입니다. 한국에서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뒤 홀어머니와 아들 둘을 데리고 39세에 미국으로 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특성상 캐나다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저희 어머니를 다 키웠다고 봐야겠죠. 고생만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반 하다 보니, 저는 3년 전에 은퇴를 했고 벌써 어느덧 72세이고, 아들들은 다 커서 한명은 미국 군인이고 한명은 한국으로 돌아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가 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선영씨 유튜브를 보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해서 은퇴 자금을 위해서 공부할 하고 있는데 무척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아주 귀우면서요 정화하게 설명해 주셔서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401k 같은 것은 없고 다니던 직장에서 펜션이 있어서 한달에 1800불씩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액연금으로 3780불이 나오니까 한달에 5,580불인데 제가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파트에서만 지내시는게 죄송해서 말년에 평생 소원인 어머니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그 집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달에 3,200 정도 됩니다. 5,580불 정도 받아서 세금 내고 여기에 모기지 내고 하면 생활이 좀 빠듯합니다. 집을 팔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집이 너무 편하고 어머니와 추억때문에 저는 계속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군인인 큰 아들이 샌디에고 사는데 저에게 오라고 하는데 저는 뉴저지가 제 고향 같아서 여기가 좋습니다. 아들이 자주 옮겨다니니까 그것도 저는 싫고 폐 끼치는 것도 싫습니다. 제가 생명보험을 미국오자 마자 에들을 위해서 하나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얼마전에 서야 찾아 보니까 사망하면 29만불이고 지금 취소해도 29만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29만불은 별로 필요한 돈도 아니고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29만불을 찾아서 혹시 어뉴이티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생명보험에서 찾아서 어뉴이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생명보험으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때 세금은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어뉴이티에 29만불을 찾아서 넣으면 내년부터 찾아 쓰면 얼마씩이나 나올까요? 문선영씨 저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뉴이티에 넣을 수 있느냐.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여러가지 베네핏 때문에 사망하실 때 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지만, 만약 사망보 상금으로 남겨 주는 것 보다 현재 내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 생명보험에 있는 캐쉬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나의 은퇴로 이자 받아 찾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에 있는 캐쉬밸류를 가지고 어뉴이티로 바꿀 때, 만약 이제까지 생명보험에 부은 프리미엄 보 험료가 현재 캐쉬밸류 보다 더 크면 그냥 생명보험을 첫번째 생명보험의 돈을 어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안녕하세요 선생님, 미국에서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선생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커서 정말 좋네요. 이제 선생님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되는데 지금 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시고 생활비는 더 필요하신데 현재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이 있으시다는 상황이에요. 일단 질문 하신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에 넣을 수 있느냐. 네 넣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여러가지 베네핏 때문에 사망하실 때 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지만, 만약 사망보 상금으로 남겨 주는 것 보다 현재 내가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런 경우 생명보험에 있는 캐쉬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겨서 나의 은퇴로 이자 받아 찾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에 있는 캐쉬밸류를 가지고 어뉴이티로 바꿀 때, 만약 이제까지 생명보험에 부은 프리미엄 보 험료가 현재 캐쉬밸류 보다 더 크면 그냥 생명보험을 첫번째 생명보험의 돈을 어



# 텔로유스 닥터 초청 세미나

“퇴행에서 재생으로”

## 줄기세포 활성화의 혁신 텔로유스

단순한 증상 억제와 통제의 의학을 넘어, 잠들어 있는 당신의 세포를 깨워 스스로 회복하게 만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재생 의학의 패러다임을 선사합니다. 세포 간 소통의 핵심 기술인 '세포 신호(Cell Signaling)'가 어떻게 우리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지, 그 혁신적인 재생의 현장에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Dr. Chris Morris

**2026. 5. 16(토)**

■오전 9:45 : 부에나 파크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오후 5:00 : Laguna Woods

(24341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Dr. Tina Johnson

**2026. 5. 17(일)**

■오후 2:45 : 가든 스위트호텔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예약 마감: 5월 13일(수)    예약 및 문의 : 폴 킴 수석코치 **714-732-8477**

### 왜 텔로유스 인가?

기존 의학이 문제가 생긴 후 '관리'에 집중할 때, 텔로유스는 본질적 재생에 집중합니다.

**세포의 언어 복구:** 세포 간 소통을 되살리는 독보적 세포 신호 기술  
**줄기세포의 기적:** 골수 내 줄기세포 활성화 및 생산을 최대 36배 촉진  
**역노화의 실현:** [퇴행]의 굴레를 벗어나 '재생'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솔루션

### [검증된 신뢰의 데이터]

-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임상 경험 데이터 보유
- 미국, 독일, 노르웨이 등 저명한 제3기관 임상 실험 완료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획득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91% 재구매율

### Special Session

### Business Opportunity

## 신기술이 선사하는 압도적 비즈니스 기회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의 선점'입니다. 세포 신호 기술을 기반으로 건강 산업의 지형을 바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런분  
정중히 모십니다**

- ☞ 건강 산업의 차세대 혁명을 선점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
- ☞ 가치 있는 치유를 전하며 지속 가능한 고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싶은 분
- ☞ 글로벌 확장성이 검증된 시스템에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분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 Business Presentation

일시 : 5월 9일(토) 오후 2:00 / 예약 마감 5월 6일(수)

일시 : 5월 30일(토) 오후 2:00 / 예약 마감 5월 27일(수)

장소 : 부에나 파크 사무실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건강을 넘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어로 진행**

- 한국어 통역 필요시  
본인 아이폰 지참